

아이와 함께한 유후인 ✈ 온천 여행

박상주 YTN IT시스템팀 사원

육아에 지친 1년간 아내와 힐링을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아이와 함께한 여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여행 준비에 앞서 사전에 고려 사항

1. 동선이 짧고 날씨가 따뜻한 지역
2. 숙소는 아이와 함께하기 편한 곳
3. 식사 장소엔 아기 의자, 예약 가능한 곳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숙소와 동선을 구글을 이용해 준비했다.

아무래도 둘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 비행시간은 짧아야 했고, 때마침 엔화 환율이 좋아 일본 료칸으로 결정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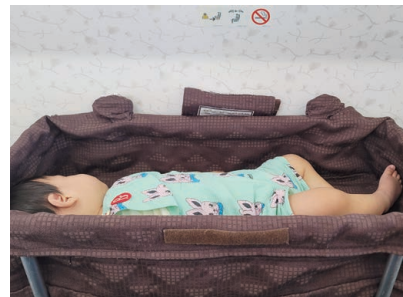
여행 전 사전 조사 및 계획

모든 계획은 구글을 이용했다. 아이와의 첫 여행인 만큼 숙소 및 이동 수단 등 많은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다. 숙소의 경우 아고다를 이용해 예약을 진행했으며 분류 카테고리에 가족/아동 여행객 친화형 시설 및 다다미 방으로 구성된 방을 기준으로 예약했다. 또한 식사도 조식과 석식을 주는 숙소인 료칸으로 예약을 진행했다.



비행과 관련한 사전 조사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이니만큼 최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여러 가지 알아봤다. 먼저 비행기의 경우 7세 미만의 아이 또는 임산부가 있다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빠르게 출국이 가능하다. 비행기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였고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가 있는데 유모차를 탑승구 앞까지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11kg 이하 75cm 이하인 아이의 경우 유아용 요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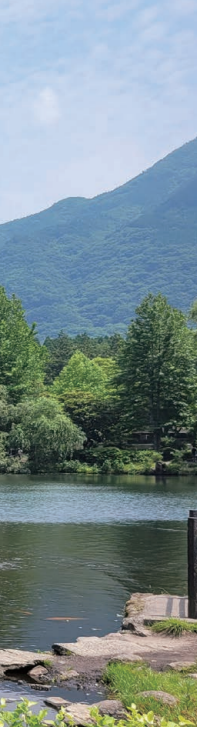


유아용 요람에서 숙면 중인 아이

주차와 관련한 사전 조사

3박 4일의 여행이다 보니 저렴한 장기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장기 주차장의 경우 사진과 같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순환 버스가 24시간 돌고 있어 사전에 시간을 숙지하고 출발해 비행시간과 맞춰 준비를 하면 저렴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

구분	기본요금		1일권
단기 승용차전용	소형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 600원	24,000원
	대형	30분 1,200원	12,000원



여행 동선 및 음식점

구글 지도를 활용했다. 동선의 경우 하루에 사전에 계획한 대로 관광지 방문은 한국식만 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도 아기 의자 및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만 준비했다.

	물	음	주	숙
0시				
1시				
2시				
3시				
4시	4시 30분 출발			
5시	5시 30분 주차장 도착			
6시	물먹이주먹, 닭고기로 찜질방			
7시	반세월 별 의류점 방문			
8시	08:00 ~ 09:25 대만관광	식사 2 : 가이세이 호텔	식사 3 : 가이세이 호텔	식사 4 : 분말점 간식
9시				
10시				
11시	식사 1 : 도시락	식사 2 : 다다로 동물원의 계수점	식사 3 : 분말점 간식(15:30)	숙소: 호텔(15:30)
12시	12:15 ~ 14:15 유후인 기차여행		12:01 ~ 14:15 하카타역 기차여행	식사 5 : 도시락(15:30)
13시	Yufu 3 열차		숙소: 호텔(15:30)	
14시		식사 6 : 노루코로 소와 찜질방		
15시	드레스스토어 방문 및 간식 : 금상고로케	유후인 바이런 호텔 (15:30)	식사 7 : 호텔(15:30)	식사 8 : 호텔(15:30)
16시	유후인 바이런 호텔 체크인		식사 9 : 호텔(15:30)	숙소: 호텔(15:30)
17시				
18시	식사 10 : 가이세이 호텔	식사 11 : 가이세이 호텔	식사 12 : 호텔(15:30)	숙소: 호텔(15:30)
19시	호텔(15:30) (Free Drink)	호텔(15:30) (Free Drink)	숙소: 호텔(15:30)	숙소: 호텔(15:30)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유후인 기차 예매

유후인 료칸이 유명해 결정하고 보니 해당 지역까지 거리가 멀어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버스가 이동시간이 좀 더 걸려 기차를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고, 일본어 사이트 (train.yoyaku.jrkyushu.co.jp)에서 예약을 해야 하기에 인터넷 블로그를 참고해 결제를 진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터넷으로 결제한 카드를 가져가 티켓 창구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제



했던 카드와 결제 시 입력한 전화번호 뒤 4자리가 필요하다. 티켓 발권 후 티켓이 1인당 티켓이 2장이 나오는데 A 티켓, B 티켓 두 장을 겹쳐서 개찰구 기계에 넣어 출입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



여행 1일 차

1일 차 동선 : 인천공항 출발 - 후쿠오카 공항 도착 - 하카타역에서 유후인으로 이동 - 드레스스토어 방문 - 금상 고로케 방문 - 숙소 체크인

아침 일찍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출발했다. 사전에 비행기 자리를 미리 예매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지 않았다. 사전에 비행기 좌석은 예매하였지만 아기가 있어 보호자 확인 및 티켓팅에 시간을 상당히 소요하였다. 이로 인해 환전, 면세점 등 급하게 진행하느라 뛰어다니게 되었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빠르게 출국 수속을 진행할 거라 생각했지만 패스트 트랙에 사람이 너무 많아 점점 시간이 지체

되었다. 다행히 시간 맞춰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에서는 사전에 예약한 베시넷 서비스를 이용했다. 짧은 경로라 오랜 시간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잠시 동안 아이가 잠을 자줘 오래간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하카타역으로 이동했고 하카타역에서 사전에 예약한 유후인 기차표를 발권하고 도시락 구매 후 유후인으로 이동했다.



이륙 전 사진



Yufu 3열차

이동시간이 2시간 26분으로 긴 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매한 도시락을 먹으며 이동했다.

📍 식사 1 : 에키벤도 하카타구치점

/ 구글 평점 : 4.0점

대체적으로 좀 짭 음식이었다. 물을 자주 먹게 되어 기차 내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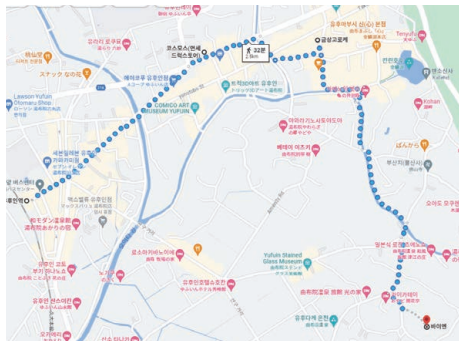




Broad Sharing + 유후인 온천 여행

유후인 역 앞 전망

유후인까지 약 2시간 30분을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리면 뒤편으로 유후산이 우리를 맞이해준다.



1일 차 유후인 동선

유후인에 도착하여 아이 이유식을 더 추가하기 위해 드럭스토어로 출발했다. 드럭스토어에서 아이 이유식과 간식을 구매하고 국내에선 품질인 생 아사히 맥주가 있어 같이 구매하였다. 구매 후 대회에 출전해 금상을 받았다는 금상고로케에 들러 고로케를 하나 들고 숙소로 도착!

📍 간식 : 금상고로케 사진 / 구글 평점 : 3.7점



료칸까지 구글 지도를 통해 동선이 32분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40분 이상 걸었다. 또한 도보로 검색을 했는데 내천 옆 오솔길로도 안내해 이동이 쉽지 않았다.



료칸 전경 사진



료칸 숙소 내부 사진

숙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시설은 조금 낙후되어 있었다. 하지만 숙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유카타 옷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는 아주 좋았다.

온천 내부는 사진 촬영이 불가해서 공식사이트 사진을 참고해서 넣었다. 온천 내부는 사진만큼이나 넓고 좋았으며 개인 탕 2개 및 남탕, 여탕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탕에는 드라이기, 수건, 면도기, 샴푸 등 씻을 수 있는 물건들이 비치되어 있어, 가볍게 몸만 가서 씻고 올 수 있다.





저녁은 가이세키 요리이다. 하나씩 코스요리로 나오며 조용한 방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해 식사를 하기에 참 좋았다. 음식들은 대체로 음식 식재료의 맛에 달달한 일본식 간장 맛이 좀 더 해서 맛이 좋았다.

조식은 저녁과 다르게 가볍게 나오는 편이다. 술 밥과, 국, 그리고 간소한 반찬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맛 또한 훌륭했다.



📍 식사 4 : 나나와 숯불구이 계수암 / 구글 평점 : 4.8점

이곳은 킨린호수 근처의 고깃집인데 사전에 구글 예약을 미리 하고 방문한 곳이다. 닭고기와 흑우 고기 및 채소를 화로에 구워 먹는 음식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맛이 좋았던 집으로 기억이 난다. 구글 평점이 좋았고, 아기 의자는 제공되지 않았지만 실내가 넓고 유모차 출입이 가능했다.

📅 여행 2일 차

2일 차 : 료칸에서 조식 - 킨린호수 근처에서 점심 식사 - 킨린호수 방문 - 메밀소바 맛집 방문 - 료칸에서 저녁 식사





📍 식사 6 : 가이세키 석식

2일 차 저녁 식사 사진이다. 다양한 음식이 많이 차려져 좋았지만 특히 유후인 지역 사케를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케가 너무 맛있어서 지역 상점에 방문해 구입하려 했으나 찾지 못했다.



식사 후 유후인 킨린호수에 방문했다. 호수가 엄청 크진 않지만 관광객이 많아 이동하기엔 좀 불편한 감은 있었다. 이 킨린호수는 수심이 매우 얇아 호수 안 물고기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식사 5 : 누루카와 소바 전문점

/ 구글 평점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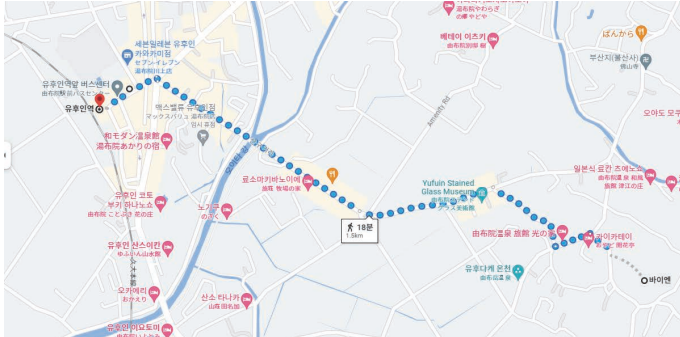
100% 메밀로 만든 소바로 맛이 아주 일품이었다. 특히 고추냉이가 좀 덜 매콤하면서 은은하게 퍼져 메밀소바와 고추냉이 소금 조합으로도 맛있게 먹은 음식이다.





여행 3일 차

3일 차 동선: 료칸에서 조식 - 유후인 가정식 식사 - 하카타역 모치나베 맛집 방문 - 나카스강에서 고기집 방문 - 돈키호테 생필품 구입



3일 차 유후인 동선

식사 7: 조식

3일 차 조식, 역시나 조식은 가볍게 속이 편안한 음식 위주로 준비가 되었다.



아침 조식을 먹고 기차를 타기 위해 유후인 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일본 택시는 비싸다고 알고 있었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그런지 한국 택시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자동문이기 때문에 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하면 기사님께서 눈치를 주시기 때문에 문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추천한다.



유후인 택시

식사 8: 하나미즈키 일본 가정식

식사 / 구글 평점: 4.3점

기차를 타기 전 가정식으로 식사를 했다. 맛이 인상적이진 않았다. 다만 음식을 주문 후 바로 조리가 시작되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식사 후 기차를 타고 하카타역으로 이동했다.



유후인 마지막 식사 - 일본 가정식

YUFUIN NO MORI 기차는 Yufu 3 기차와 다르게 초록색이다. 기차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명한 관광지를 지나가면 잠시 기차의 속도를 줄여 탑승객들이 조금 더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직원의 해설까지 더해지지만 일본어라 알아듣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열차 안에 역무원 옷을 입어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어 일반 기차보다 즐길 거리가 있다.



유후인 노모리 기차



열차 내부 줄길 거리



3일 차 하카타역 동선

일본을 떠나기 전 후쿠오카 공항 근처인 하카타역으로 돌아왔다. 하카타역에서 근처인 키타하카타에서 가볍게 모즈나베를 먹었다.

📍 식사 9 : 하카타 모즈나베 오오야마 키타하카타점 / 구글 평점 : 4.4점

된장베이스의 모즈나베를 먹었는데 한국인의 입맛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말 육회가 신선했다.



숙소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후쿠오카 지역은 카카오톡로 호출이 가능하다. 이동 경로 및 예상금액을 알 수 있고, 비용도 등록된 한국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3일 차 숙소도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진행했다. 이 숙소의 경우 무인 숙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한 투숙객에게 입실 전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내부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가능하다.



숙소 외부



체크인을 위한 태블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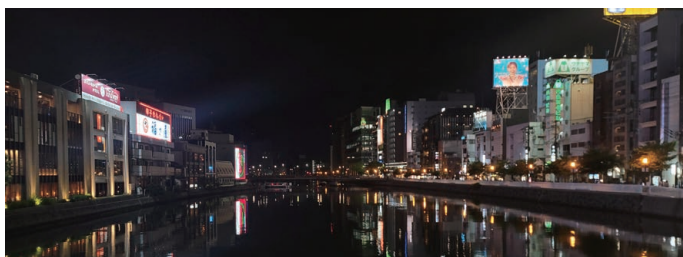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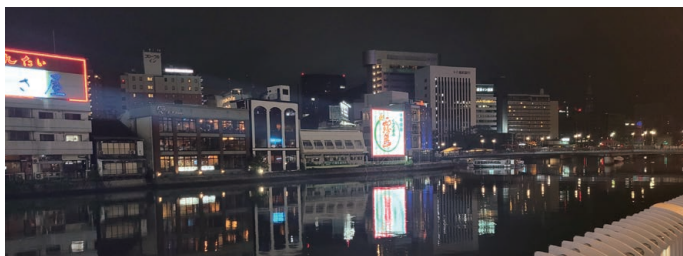
숙소 내부

📍 식사 10 : Gyeongju Haruyoshi shop / 구글 평점 : 4.2점

이렇게 기름진 소고기는 살면서 처음 먹었는데 정말 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기름져서 와사비나 제 공해 주는 소스를 꼭 찍어 먹게 된다.



저녁 식사 이후 나카스 강을 지나 포장마차 거리를 둘러보며, 포장마차 분위기도 즐기고 버스킹도 구경했다. 주변에 헌팅을 하는 일본인들도 보였는데 이전 홍대거리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이후 돈키호테에 가서 쇼핑을 간단하게 즐긴 후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다.



나카스 강 사진 및 포장마차 거리



여행 4일 차

4일 차 동선: 편의점 아침점 간식 - 하카타역 근처 스시집 방문 -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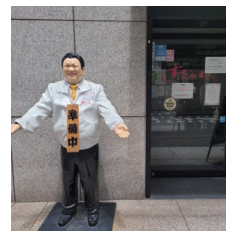
오전에 일어나 일본 편의점쇼핑을 즐기며 간식으로 배를 채웠다.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느낀 점은 확실히 디저트가 맛이 좋다는 것이

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한 잔씩 하고 난 후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했다.

📍 식사 12 : 스시잔마이

/ 구글 평점 : 3.7점

이전에 일본에 여행 왔을 때 방문해 맛있게 먹었던 스시집이다. 체인점마다 맛과 평점이 달라 고민했지만, 동선상 다른 스시집보다 접근성이 좋아 방문했다. 역시 아주 신선한 스시를 먹어 기분이 좋았다. 이후 면세쇼핑을 한 후 귀국했다.



여행 소감

여행을 준비하여 느낀 점은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은 항상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고, 현지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내내 있어 동선은 짧고 여유롭게 준비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이 생겼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다음에 또 여행을 간다면 아이가 좀 더 크면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떠나기 전 하카타역 사진